

항은목소리가 목소리논비록 나지하엿스나 어투는 이상스러이 비양스럽게
항은눈치라 서병삼은 간신히 괴석을천연히항야

「아 드러오구려 맞침잘왔소 그티 친구도 여기와서 계시니.....」

절문부인은 리경즈를 눈썹리로 씌 흘려 보며 방안으로 드러가더니 서병삼의 엽혜
가서 펼셔 주저안즈며 두사람의 괴석을 유심히 훑혀 보느티 리경즈도 또흐 두사
름사이에 는 하등비밀한관계가 있는듯이 서병삼과 절문부인의 엽골을 자로도라
본다

서병삼은 두사람의 적국이 서로마 조쳐서 안져잇스미 그스이에셔 무슴풍파가 일
어날는지 무슴이 조리여 얼룩투며 디여 휘지부지 할려는 생각으로 시침이를 췌
이고 그절문부인에게 항야

「이 량반은 나의 막약으로 지늬는 친구의 부인이 신디 리경즈씨라고 항는
량반이오 내가 일상 이어 룬딕에 가서 룬샹 루을세 친일도 만코 신제도 만이 져
지오」

항며 또다시 리경즈를 항야

「여보시오 이 사람은 나의 의누의 올시다 노상 괴골셔 만살다가 인져에 서울
구경도 할겸 항야 서 올나왔다가 지금내 주인집에서 갖치목고 잇는중이오
두분이다정이 지늬주시오」

리경즈는 무슴속에 는 의심이 가득하나 간신히 숨기고 온순한말로

「네— 아 그러하시요 오날 참처음 뵈옵습니다 그려」

절문부인은 어디서 지던지 불쾌한어스로

「참 인제 만나기가 느졌구려 서방님씨셔는 늘딕에 가서 신세를세 친다 나님
오도 불안하고 감사항오」

리경즈는 녀름에 헤오디 저녀즈가 만일 그 남편의 항던말과 갖치 의로미진 남디
간일 지경이면 오라비와 누의 간에 언스와 행동이 이와 갖치 안이 할것이오 또
그녀즈의 나를 디 항여 항는 언스중에는 바날삿 갖흔 날 님가 시가 품어 잇는 것
치 은연지중에 발표가 된다 절문부인도 또 흐 생각항되 그 남편이 친구의 부인이
라 소리는 항였스나 친구의 부인이 무슴일로 그 남편의 친구를 홀로 초쳐 왔슬리
유도 업슬뿐 아니라 얼골의 화려함과 티도의 어엿분 것이 그절문부인의 게 디 항야
는 무한한 가슴에 요동을 일으킨다 황초그녀즈의 가슴아리를 훑히 건디 평인의
몸이 안이요 완연히 티중에 만사된 사람이 덕실한지라 그 부인은 이리저리 생각함
의 홀연 질투의 화염이 삼천장이나 소사를 올듯시 일어나며 시괴스럽고 미운
음이 진정키어렵다 만일 저녀즈가 나의 생각 먹은 바와 못치 불합할 것 못흐면 내
가 그 계집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씹어도 오히려 실치안이 항리라고 생각항였다
서병삼은 두녀즈스이에 는 말셔바름과 물스결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보고 아모

조록 평화를 보 존 할 가 할 야 일 골 이 푸 르 락 북 으 락 할 며 묵 묵 히 안 저 서 두 무 름 우 에 두 팔 썸 치 를 을 녀 노 코 치 마 신 을 들 々 마 라 다 가 확 찢 다 가 할 며 눈 에 는 노 기 반 을 음 반 이 셔 겨 서 우 연 히 쉴 압 흘 니 러 다 보 고 잇 는 절 문 부 인 을 바 라 보 며

「웨 그러케덤々덜흥고잇소 두부인이 즈미잇는리약이나하고 노라보구려」
절문부인은, 별안간에 썩지르는목소리로

「나갓흔 식골년이 즈미잇는리야기를 알아야할지.....저런아씨는 서울량 반이니시간.....」

할며 말쑤을 다아을니 지못하고 목소리가 썰니더니 고기를숙이고 치마셔리로 눈물을씻는다 리경즈는 그말에

「아니 그량반이 웨나를가지고 그러슴닛가 나도식골계집이올시다」
서병삼은 감안이 그형편을습히건디 도저히일이 온전치못할줄알고 폐척을잠

스간 생각하여 모피코자하여 리경즈를향하여 말하다
「아 그사름을 보려하면 별서시간이 늦지만이 할 옛것소 어서가보시오 시간

이지되면 볼사름을보지못올터이니 어서일어스시오」
할며 서병삼은 경즈를지축하여 도라가기를말하다

데이십삼회
두부인은 서로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중이라 그절문부인이 아모리그성질이

쌍

경솔하기로 다만의아는디 지니지못하는일을 구두에올녀 서로말담음을 할 기 도 어려우나 다만눈에는 서로용서치못하는 괴석이보이며 언어하는가온디는 은연히 날카로운 칼날이 품어잇슬뿐이라

리경즈는 연약흐몸에 넘치는고성과 근심의묵어운짐을지고 믿음에심히쓰리고 녀녀되는남녀 두사름을 남겨두고 홀일업시 그집을나서 나의집을향하여 도라 온다

리경즈가 슈심이싸여 작별하고 떠나가는데 소모양을 뒤문밖나설썩지 바라 보고잇던 절문부인은 이제비로소 가슴에 가득하던 말을 남편압해서 설파코즈 할야 서병삼의압호로 무릅을박사々々녀여밀고 안즈면서

「여보 서방님」
「아이고 았썩놀니구만 별안간에 그건무슨소리야」
「웨 이러케 시침을 똑째이고 이리할오 너무뭇살실어워 못보겟네」

「무엇이라느소리야 그러면언제는 날을입버항앗슴더닛가」
「공연히 그러케시침째고 말할실게아니라요 잠간엿쥬어볼말이잇서々그 리할는말이야요」
「응 날다려 물어볼말이 잇다하는말인가 무슨말이요 어서하시오 너가알

만흔일이면 못느티로다 대답하지
 절은부인은 천정으로 성낸얼골을향며

「남은이를써서 말하느티 그릇채농판으로 말씀할것이 아니야요 그런데
 지금여기와서 안젖든너편네는 도디쳐 웨너편네요 그런디 처음아시기는
 엇지히서 알앗드란말이요 그말디답좀하여주소」

서병삼은 허우스며

「별안간에 그말은웨물어쓸디업서 또무슨싱각을가지고하느말인지 모르겟
 네그러」

「글세 쓸데잇는지 쓸데업는지 못느말디답만하여주소구려 나는식골서 농
 토에과못쳐잇든 못싱근년이난가 알아듯도록 말씀하여주소면그말이지요」
 향며 눈에눈물물을먹음고 얼골에는 암상이가득히을낫츠나 한편으로는 사나
 희에게 원정을향는듯하며 그가온디로 가련하고 어엿분리도가 잇는듯이 서병
 삼은 더욱히바라보고 우숨을먹음어

「네게 너편네손이 좀왔기로 그닥지몹시절문할것이야 무엇이오 아니네가
 그너편네향고 무슨관계나잇서々 초자온줄노알고그리나 허々々 나원우슈
 어못견디겟네」

「글세관계야 잇던지업던지간에 못느말이나디답하여요」

서병삼은 더욱이 웃기를마지아나향며

「이건 공연히 청망을이리향네그러 친구의부인이라도 불일이잇스면 초조
 오기도 레스지 엽헤다박삭 설어다안쳤다하니 그지손 이상스려운모음에
 억지로그레케본거시지 내가 이레케입분안히를두고서 웨다른뜻헤다가손
 을디일리가잇소 응글세」

향며 손으로부인의 무릅을탁친다 그러나 그부인은 일향흔모양으로

「암만해도 나조흔년은 의심만코 저암만은년이니스간 저서히알기서지는
 무러볼테야 그친구라하느이는 무엇을향는이요」

「글세 그러케저서이 무려서는 무엇에 쓰려나 나고 막년으로 친흔사람……」

「글세 그말은 알았셔요」

「알았스면 구만두지」
「올치 그러케영병히셔 넘기려고 글세 그남편되느니는 무엇을하느사람이
나 말이야요」

「제의원노릇하느 사람이야 성은최가요 나하고 막년친구지……」

「압다 친구소리는 퍼도늬제네 그런데어디셔사는니란 말이요」

「사는데저지는 알아셔무엇하오 살기느저—슈구문안 근처산다오」

「그리셔 무슨일로 왔단말씀이요」

「일부러 나를쳐보러온것이안이라 맞춤이근쳐서지 오느길이잇스니스간
그남편되느니에 전갈을전하라고 왔느길이야」

「그런디 그이가 아히비엿습디다그려 비가곳크던걸」

「비가 부르든가 나는정신쳐려 보지안이히셔 응—」

「또 시침세」다 여간큰게무엇이오 지금이아마 만삭인갑디다 그리셔셔
방님께 무슨의론초로온 모양이든데그리요 그녀편네하느양이라던지셔방
님을 흘금흘금보는눈치라던지 암만히도 친구의부인은안이야요 각금각금
나를쳐어다보는 눈길에는 바날썩갓흔 독살이잔스득드러와요」

셔병삼은 그부인의 혈문이긴급함으로 적이념녀가되느지 시럽시하느덜골을
고치고

「그야말로 이오지심으로 탁타인지심으로구 저기가 언어와눈치에 바날썩
갓흔독살을품어가지고 말을하구셔 남다려공연히 그런말을하여 악가는
셜왕설리에 트집잡듯이 말하기에 느는그부인에게 디히셔엇지불안흔지
모르겟습디다 그것은 다 무슨짓이야 그디만하더리도 점자는부인이 처음
보는손님에게 그게무슨언스란말이요 남에부인은 고사하고 오히려비여셔
만삭된녀편네에게 손을디일 미친놈이어디잇단말이오 글세」

점근부인은 무슨싱각을하엿는지 눈물을썩썩떨러트리면서

「응 그러치요 느는식골년이니스간 의심도만코 저암도만은년이오 점자는
부인이 다무엇이오 형실도못비호고 미친것갓흔년이그러니스간 남의눈에
도들지못하고 소박이라도받지요 악가부인네긋치 점잔코 앞전할수야잇
소아이분히……」

「하며 치마로얼골을 가리우고 폭업디려셔 늦겨가며 체음한다 셔병삼은이러
하게 난잡하느게집을 절기여하느성질이라 감안히그부인의뒤로 도라가셔
업디여셔 올고잇는부인의 겨드링이를 썩썩러 간즈르며

「글세 웨이리하여 못싱긴것도다하네 안방에서 장모드르시네 어셔일이느

오
데이십사회

리경조가 서병삼의 처소에 서서 떠는 조지 집을 향하여 도라오며 로상에서 그윽히
 생각해본다. 현지목전에 당하고성과근심도 별서이런약혼몸에 넘쳐거늘 지
 금만나든 그절문부인이 필연코 나의적국의 사를을 엮음이 분명하니 이후로는
 이몸의장리가 엮지되리오오며 이싱각저싱각을함미 슬흔싱각이가슴에 막혀나
 오거늘 더욱이 서병삼의천루(賤陋)혼인스를 전부러의심하였스나 이제목전에
 그와또흔 천흔행세를가지는것시 좃타는것으로 천고행뜻이오니 그말을듯는이
 몸의스름은조치물론이어나와 이와또흔주의(主義)를 품은사나화가 삶에인들
 녀조의정절(貞節)이라하는거슬 중한게역이기는싱각박개일이라 그절문부인
 은 엮더흔사람인지는모로되 의누의라하는 연스와행동을 불지경이면 남미의
 행동이아니라 그녀조에게로 사나회의몸음이 옮겨가는지도모로리다 금일에
 일으러 뇌몸에티흔이정(愛情)이 점々열버가는것곳치 싱각됨도 그녀조에게
 정이더하여하는고로 그러함이안닌가하며 그와또치싱각함에 분흔과슬흔이 비
 길디 업는지라 이러흔씨에 의논도하며 힘입을만흔사람은 다만오정당흔스름
 뿐이라 나의집으로 도라가고조 마음하였던발딴치 스스로 오정당의집으로 향
 하였더라

쌍
옥
누

오정당은 리경조의 슈심에싸여들어오는 모양을보더니 잠산눈쌀을썩푸리고
 방석을쥬어 안지라하며 정다아

「날노 퍼 더웁지 여귀부치잇스니 부치절하게」

「네.....」

하고 티답흔말이 괴운이하나도업시나온다 오정당은 또무삼일이싱것는가하
 며
 「웨 또무슨걱정이싱것나 자네는너무마음이 좁아못쓰겟스나 마음을좁크
 게가지게 그러케 근심으로만 날을보이면 몸에히로와요」
 리경조는 여지로우슴을저으며

「참저는 엮지혀서 성미가이러흔가요 제가제싱각을히도 그런줄은 모로는
 것도아니지만은 암만히도 곳쳐지자안이히요 무슨근심이 조곰이라도잇스
 면 그만나심이되고서엮전지 생았흔곳으로 신을녀드러가는것갓하서 저절
 노환하고 명나흔데는실코 남은시려하드리도 본성품이 그모양이니 이를
 엮지하면 좃킷습닛가」

하며 무어슬기히싱각하고잇는지 고기를숙이고 압만나려다본다

「조네는 조네손으로 조그의몸음을약하도록.....만드니사 그러치 아모
 리도 리중에는 신경과민(神經過敏)이되야서 사담업는일이 슬흔기도하고

심난한지만은 그것도 저기가 믿음먹기에 달닌거시야 저네도넘오그러케 근심만하지말고 전에학교의 단일씩갓치 씩씩하고 활발한과상을 보이게 나그려 지금그씨에다비하면 아조싼사람이 되어바렸서」

「네 참 그리요 제가싱각을히도 그러할일이오 지금싱각하면 학교에다닐 씨곳치 저미잇고 질거운씨는 업셔요 세상에논 이러흔근심이 잇는줄을 참몰났지요 저는그씨여러가지로 공상(空想)에 파뭇쳐서 질거위하던거시 엇지뒤우치는지 몰나요 세상은 아지도뭇고셔 공상하는것곳치 솔음에근본되는것슨 업는줄압니다.....저는 본리 뭇싱긴연고로 이와갓흔근심을 제손으로 장만히시오」

「저네가 그러케말을하면 니가면목이업네 내가다싱각을멀니뭇흔사담으로 이와갓흔일이 싱겟스니스간」

「아니요 선성님 그일은그러치안습니다 모두제가 다구흔일이오」
조곰잇더니 오정당은다시

「그런데 여보게 자네는 너무심너가과하네 니외간에서로 각々거쳐를하니스간 후시호젓하고 심난할싱각도 날씨가잇겟지마은 그럴거시안이야 할마안이잇스면 옥동즈갓흔 아달을나아가지고 니외분이 희희락락하면서

한집안에서 사실러가안인가 그러하면 세상사람들이 누가안이부러하겟는가」

오정당의 믿음에도 리경즈의근심이 일일이다 원인이잇는줄은 아는바이로터위로하여 믿음에업는 조흔말로달닌이다 리경즈는 여전히간신히 우슴을지으면서

「안이요 그러치안이히요 그량반의믿음과 내믿음과는 웬똥판이야요가 령호집안에서 살남하고 산다하더리도 자미스러온가정을 만들기는암만하여도 어렵겟셔요 그리도 저는저의본리 먹은믿음은 다쏘다니바리고한갓남편의희생(犧牲)이되여셔라도 남편의뜻에 순종하고심으나 장장세월을나의량심에 버셔나는일을하면서 믿음으로 질겁게 지니자하는일은뜻々니암만히도 어려울듯히요 그러나저는아모도 원망하지안습니다 그만하면 제분에게하것스로만알고 지닐싱각이올시다만은 다만한가지근심되논일은 남편이몸을 헌신곳치 바리지아니할가하는일이올시다」

데이십오회

이와갓흔 말을듯고잇는 오정당은 심중에가만히 싱각하되 리경즈를 전일에니가쳐음으로달닌여 서병삼과 하여지도록 권고하제는 리경즈가 서병삼에게진정으로흐넛던 덕인고로 너의말을 반덕하엿거니와 지금일으러서는 서병삼과

의기가 상합지 못할뿐 아니라 그 사람의 무정훈거슬 세다른 이상에는 이번에는
니가 다시 묘하게 말을 잡아 너를 갖듯 하면 후시 성공할 기회를 잊을는지도 아지
못할리라 하여 리경조의 압력으로 밧삭닥어안즈며

「여보게 서병삼씨가 그와 못치 못미칠 사람을 오 또그량반하고 갖치살아야
질거이 혼세상을 보낼 소망이 업는 줄로알디경이면 진작즈네도 단련하여 버
리는 것이 조치가 이하겠는가 아즉즈네는 섯츠로 말하면 섯봉을 일세그러그
러 혼일성을 장녀성 업는 사나회게 식을녀당기며 허송을 놓면 그런원훈은
일이 어디잇나 즈네 갖치 한가지로 압전 혼남편업겟나 열녀는 불경이 부라
하나 그것은 넷적말이지 지금이 리회세상에서 쓰는 룬리(倫理)는 그것으로
만구의 하지안아흐다네 그리고 여편네에 정절이라 하는 것이 그것만가지고
정절이안이야 그러하니 츠라리 그러케니 말되로 결심하게 응」

리경조는 그 말을 더욱히듯드니 길게 혼숨쉬으며

「제 몸을 장리치지 그닥지 염녀하고 생각하여 주시니 너 무황송하고 코말습
니다만은 그말습은 몇번을 하셔도 일상맛창가지 말이올시다 제가 구히셔 엇
은일로 그갑음을 제가 밧는 것이야 당연한일이 안이 오닛가 가령이 후에 남
편에게 천덕을 밧든지 학덕을 밧든지 다 참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와서 인연을 미진남편을 그사나회가 결점이잇다구 무정하게서리 인연

을 쓰나니 허여 지나니 하는 그런정리에 버셔나는 일을 잊지흐니 가져는 이
전성인의 열녀는 불경이 부라하는 교훈을 직히고 조하여서 그러는 것도 아니
구요 한번 남의 안히라 하는 말을 들은후에는 어디까지던지 남의 계집된 직분
을 직혀야 하지 아니하겠습닛가 그런말습은 다시 하시지마십시요」
하여 날넌칼로 쓰난듯이 말을 하나 오정당은 굶은마음이 지금도 오히려 움직이
지 못할 줄로 알고 역시 입시 응변하는 수단으로

「즈네는 가히 참녀편녀라 할만하이 그와 못치 결심이 굶을지경이면 그런
스의스러운 소리는 다시 아니함세 즈네의 마음이 그러하면 서병삼씨로 말하
드리도 섯츠 혼량반이니까 고원간에 즈네 마음쓰는듯 감동되어서 즈네가
아니면 다시는 이세상에 안히감이 업는 것조차 알려일세 정에는 귀신의 설
도 굶힌다는 말이 잊지 아니하가.....」

리경조는 다시 얼굴에 근심을 품어가지고

「그러나 선성님하가지 녀녀되는일이 잊혀요 오늘 죽동을 갖다가 지금집으
로 도라가는 길이올시다.....」

하여 말을 멈춘다

「아 죽동을 단여와서 그러셔」

「그런데 거기 웬 절문녀편네가 한아잇습디다」

오정당은 연쪽을 손에 든 채로 리경조를 바라보며

「응 그리 나히는 몇살이나 되어 보이는 녀편네든가」

「열팔구세나 되어 봅디다 일전에 시골서 서울구경으로 올라왔디요 그런
덕 서방님의 의누의라고 하오」

오정당은 눈에 이상스러운 괴운이 보이며

「아 그러면 열골입부장스럽고 눈에는 독살이 좀 있는 것갓고 살빛은 희고
किन홀이 / < 홀사름이지」

「네 그러히요 선성님도 언제 보셨슴닛가」

「응 요전에 한번 갔더니 잇길니 니가 무러보니 시간 서병삼씨 말은 그 집주인
에게 온 손님이라고 하기에 나는 그 홀줄만 알았지 그리 그 녀편네가의 남편
홀누의라고 하시던가」

「네」

하며 홀년눈물을 먹음는다 오정당은 리경조의 모습을 짐작하고

「의누의던지 친구의누의던지 즈네가 그것관게 할 것이 무어신가」

「그러치만」 저와는 오날 처음 보고 인스 홀썬인디 엇지 말론 마디를 하여도 밍
살스럽게 하는지 몰나요.....」

「녀편네라 하는 것은 내 남적 할 것 업서 모다 성품이 야박스러운 물건되야

서 그러할지 더구는 의누의가 되야서 그 형티를 호노라고 그리 하느게시지」

「안이야요 그러치안어요 서방님이 처음인스 붓칠씨에 는 서방님 친구의
부인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케 속여서 말하엿는데 의누의인지 오라범딕
인지 알수가 엿서야지요 그리고 엿지히서 서로 하는 것시 이상스럽습디다」

「그것은 약가도 말하엿거니와 신경이 과민(神經過敏)히서 그러하게 생각
즈네가 는는 것시지 서병삼씨기로 즈네하고 결혼시지 할량반이 그럴리가
잇겟는 설마」

「그릿가요 저는 그리도 밋을수 업서요」

「그야 그러케 밋고야 잇슬슈가 잇는 눈썹허야 하지 스는 희라 하는 거슨 믿음
이 변하기 쉬우인스간.....」

리경조는 고리를 숙이고 잇는 체도 무너하안져 잇다 오정당은 과일에 서병삼에
게서 만는던 녀자가 과연 리경조의 적국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는 은근히 가슴을
상하게 한다

리경조는 오정당의 집을 심방하엿스는 별도로 한가지의 위로도 엿지 못하고

차자 오던씨와 일반으로 슈운(愁雲)에 싸여서 초연(惘然)히 오정당의 집문을
나서 종로종각 근처에 이르러 홀연 홀녀즈와 만나니 이녀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병삼의 집에서 만나던 절문부인이라 그 절문부인은 벌써 리경조인 줄을 알고

뒤를따라가는 리경조는 그 절문부인인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였더라

절문부인은 서병삼의 감인리설에 잠시요란한 마음은 진정하였으나 처음부터

의심스럽던 마음은 용이히 살아지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부인은 질투심(嫉妬心)

이 예사 사람보다 흉측더흐려드니라 언제든지 서병삼과 리경조의 관계를 명백

히 사출하여 서병삼의 말은 바와 같치 진정의 원에 부인인지 혹시는 거짓으로 꾸

며 더는 말인지를 확실하지 못하면 마지아니 할 줄로 심중에 결단하고 그날로 최

의스 집을 차자 서병삼의 말에 진가를 알고 자항여나 섰더니 다행이 종로 근처에서

리경조를 만난지라 그 부인은 리경조가 난도로 뒤쫓아 따라가서 그 비용을 알고자

함이러라

이와 같치 사람의 게 투기를 맞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심한 리경조는 다만 길에 왕

리하는 남자들의 보는 거슬 붓그러워 치마를 우구려쓰고 뒤를 도라 불여가도 업

시 음만 향하여 가는 고로 흉악한 적병이 뒤를 음습하여 오는 줄도 전연히 알지

못하고 경복궁 대궐 앞 문동으로 돌쳐서서 저하스골편을 향하여 나아가 간다

오륙월 장창하일이 벌서서 산으로 기우러져서 북은 노을 떠잇는 하늘에 저녀서

처와 참시 무리들은 경회루(慶會樓) 앞 연못가는 모슈풀사이에서 지저귀는 소리

원근에 가득흐디 리경조는 어연간에 샹적골동늬에 들어서서 엇던 골목으로 드

러서더니 조고만하고 정결 소색한 초가집으로 쓰드러가서 디문을 지친 후에는

다른 형인은 업고 다만 두 부장사가 저녀 두 부를 외오고 갈뿐이라

그 부인은 이곳까지 다다라서 다시 그 집의 형편을 좌우로 훑혀보니 심여간이나 되

는 초가집인디 장독대 압호로는 석류분과 영산꽃만기하여 마당 앞 햇빛시렁

롱흐디 가만히 귀를 기울여듯건디 방안에서는 로파의 목소리와 절문녀의 목소

리도 서로 도란 / 하며 짓거릴뿐이라 이 부인은 다시 문우에 문피를 치어 다보

니 비록 녀의 무식한 눈이라도 그 남편 서병삼의 성명은 분명히 알아 불지라 그

문피를 보더니 문득 가슴으로 조초 화렴이 소스나오며 독기가 득흐안광으로 그 집

을 향하여 흐침이나 눈을 흘겨 보더니 혼자 말로

「아이고 내가 숨을 잊지하면 도흔가…… 계집년을 몰니치가 하두고서 날을

속여 이러케도 사름을 속이니 응 친구의 부인이 다우어시야 아모리 시골년

이라고 이러케 업스녀 일수가 있나 아이고 분히라 이년너도 님손에 죽고 말나

라 남의 남편을 썩쳐 다리고 살야 더구나 식기까지 비여가지고 이년네가 그

저식을 나으면 잘기를 줄아니 너가 죽어서 악귀가 되어서라도 못기르게 할결

…… 서방님도 서방님이 지 나는 아모것도 모른다구 이러케 속일 수가 있담

…… 너가 드러가서 이년을 머리치를 휘여 잡고 널치가 되도록 짓썩다려쥬

스가 보다…… 오날은 느젼스니 리일이라도 서방님을 살고와서 나에게 이년

경철졸알아라. 오늘은 심분싱각히셔 너를 용서한다. 망흔년호흐니.....너
흔테 좀견디여보아라」

하며 분에 못이여 종종거름으로 죽등을 향하야 다시 도라가나라
데 이 심철 회

쌍 남녀간의 정이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김허가면 한편에는 즈연 열버지는 것은 이
상의 향용잇는 일이라 사랑은 본리논아하지 못하느니 하물며 서병삼은 리경즈
에게 디흐스탕이 점점감하야 가는 데에 즈기의 마음에 맞는 절문안히가와셔 한가
지잇스미 리경즈를 사랑하느정은 더욱 / 열버가는 지라 그럼으로 사직골리경
즈의 집에는 서병삼의 발즈최가 스스르 멀어져셔 츠즈가는 날이 전혀업다하야도
가홀지니 리경즈의 럼녀와 심난흔마음이 조고마흔몸에 가득하야 눈물노날을보
닉논디 이셔는 하천일과라 청낭흔일과는 적고 음습흔날이 만은 지라 숨흐다 리
경즈는 그들의 몸으로 음담(陰曇)하가온디에서 즈미스렵지 못흔 세월을보닉고
있다

오정당은 리경즈의 가련흔 정상을보고 셔셔로서 병삼을 츠즈가셔 리경즈의 불상
흔스정을 설화하야 시시로가셔 그 마음을 위로하야 주라고 간곡히 부탁흐므로
서병삼과 갓흔위인도 그 말을을히여이엿던지 후시마음이 닉이커면 스직골로향
하야가는 일도잇스나 그러는 심중에 담담하지 못홀터이라 비록셔로 디홀지라도

정담은 업고 다만 얼골만셔로보고 도라을 썩이라 리경즈의 간절흔마음은 조곰도
헤아리지 못하느 무정야박흔이 남즈의 행동은 진실로가증호도다
이와갓치 변하야가는 사나희의 마음을 리경즈도 짐작은하나 나의 마음에 디로원
둥흔말을 남편에게 향하야 한번말이라도 하야보고 심흔마음은 간절하나 도로
허나 다려투고하느게 집이라고 형실업는게 집이라고 알스가 혐의적어 다만원망
만흔썩이요 호을노 연약하가삼만 티을 썩이라 그러나 이투고만코 암독흔서병
삼의부인은 남편되는 사람이 은근히 이첩을두고 즈기를어디까지지 속이는
것이 마음에 심히 불쾌하야 어느셔든지 서병삼이 사직골가는 기미를 알것갓호
면 그뒤를 발바가셔 여러날동안 참고참앗든한을 갑흐리라하야 맛참단장호고
그 기회도라 오기를 고디하더라

「서병삼씨요」
「아 당신은 어디갓다 오시는 길이시요」
「네 나는 지금 사직골갓다오는 길이요 그런데 여보요스이는 당초에 한번도
아니 오신답디다 그려 오작야 속하겟소 만삭된안히를두고셔 그려케 모른체

한단 말이요 사람도 무정도 하지 아모리 다른데 어업분아가씨를 두었는지는 모르지만.....넘오심하구려」

「이건 길에서 다루손 소리요 남벗그럽소 그리게 지금가는 길이야요」

「사직골가시는 길이야요」 그럴어셔가보시오 좀기다리고잇겟소 나는다른 데가시는 줄알았구려 어셔가보시오」

「그럼일간또뵈옵시다」

「네 안녕히가시오」

오정당은 서병삼과 작별하고 조곰오더니 엇더흔녀즈흔사람이 치마를쓰코분
사이가는디 얼골이 심히익은지라 그러나 생각의 얼뜻시나지안이하는고로셔로
지는여 삼스간동안을 지니여노코 오정당은 다시그녀즈를 돌려본즉 그녀즈
도또흔이쪽을바라는지라 그석에비로소 앓씩생각이느니 이는서병삼의주인집
에와서잇던그절문녀즈라 그녀즈는 오정당과얼골이셔로마조치미 앓씩놀니여
도로고귀를도로키고 거름을급히하여 서병삼의가는곳을 향하여 쫓차간다 오
정당은 그모양을 이윽히셔々보며

「저 녀편네가 필연무슴일이잇는거시로고 일전에 리경즈의말이 서병삼과
의남리간이라하나 그두사람의행동과 즈기에게말하는언스가 심히슈상흔
일이만트라하더니 저녀즈가 서병삼의뒤를싸라가는 모양이 미오이상하다

만일동행일지경이면 한가지로가지 이렇듯동안이뜨게 갈리가업거늘 셔씨
가리경즈에게 간다는디 저러듯쫓차가는거슨 필유곡절흔일이니 참이상스
럽고.....」
혼자말로하다가 심히념려하여 또흔갓치쫓차가려하다가 다시생각하고 나의집
을향하여가니라

예이십팔회

사직골막바지 초가집안에 마루뒤스문을열어적기고 주렴을느렸는디 그안마로
에 돛즈리살고 셋갓흔절문부인이 모시항나적삼에 옥식모시치마를입고 실음
업시안져 타리버선에 수를놓코 안져잇고 그압호로마조안준 오십가량이나되
여보이는로파한사람은 어린아히누비포닥이를 누비며셔로도란 < 거리니 이
는리경즈와 로파러라

로파는 누비든바날을멈추고 리경즈를바라보며

「괴운드시는데 그만두십시오구려 지금달찬몸을가지시고 일을을엇저하시요
게두실시오 할법이 나히는만아도 그수야 못늦킵스니셔 그만두시고 좀누
어쉬시오」

리경즈는 홀연히손으로 왼편비를쥐고 눈살을썩흐린다

「웨 그리셔요 비가압흐심닛가」

「요씨는 아히가 엿지썩노는지 그럴제마다 비가지향업시압하셔 못견디겟
서요」

항며 다시빅에손을뻘이고 눈썩을편다 로파는 빙그림이 우스면서

「아이 익기가노느라고 그러습니다 그러사나희아가되어셔 그러습니다」
「할멈은 스나헌지 계집아히인지 엿지미리그렇게 녀녀히아나」

「그것이야몰나요 익기가 왼편에서 노— 논다고하시지만엿습닛가 왼편에
셔늘면 정년사나희시오 그것은 이할멈이다짐작이라도 항겟습니다」

경주는 미쇼를뻘우며

「나는 계집아희나안닌가 의심이나는디 만일계집아히면 엿지히」

「계집아히면 엿습닛가 첫썩은제간밋천이랍니다」

「그렇지만 썩년이나오면 엿더케하게 나갓흔팔즈를타면……………」

항며 부지중에락루한다 로파는위로항는말로

「아씨의기는 도련님이니 그저걱정마셔요 이할미도 경녕이만답니다」

리경주는 치마고리로 눈물을씨으며

「여보게 할멈나는 희산을엿지호는지 큰걱정이야 서방님은 병원에들어가
셔 희산을호라고하시지만 압만히도 병원에가셔 홀몸은업서」

「아이고 망측히라 병원에가셔 희산이다무엇시야오 그런데서 희산항면

어린아히에게 히롭답니다」

「그러키야항겟는만은 서방님은 당신단기는학교에 한편에는 의원이잇스
니시간 그리가면 다집안니갓혀셔 희산구완도 잘히줄터이니시간 말씀이
지……………참집에서하라면 사람이라고야 누가잇나 할멈한아뿐이지 선성
님도 멀니게시고……………는는 이일더일싱각항면 모두심난하기만히요」

리경주의심난하다호은 희산구완할사람이 부족항야 심난하다호뿐아니라 남갓
호면 초산에 천척봉우간에 옷슬히보느니 보션을히보느니나 홀터인디 피츠
에부모를속인몸이라 절거운경스가 도로혀 설음의물건이된 금일경우를싱각호
이 세상에출싱하는 어린아히도 저의부모와 한가지로 근을의물건이되야 락업
는세상보낼일은 싱각스록 한업는눈물을 도을뿐인디 이런설음일지라도 일싱
을의탁호남편과 셔로근심과설음을 논아호것호호면 오히려숨호중위로되는일
도잇겟지만 그바라는바스름은 작금에일으려는 박정호를 썩다겟는디 다만호
로적은가삼이 썩어져가는 근심만더호뿐이니 불상항다호는말도 리경주의신상
에티항야는 오히려레언이되얏더라

로파는 비록호집안에 동거항는 그김흔니용은 본리지셔히 아지못항는고로 위
로항는말로

「웨그리심난히호심닛가 희산구완은 이할미호느라도 녀々히합니다 녀

마십시요」

「지금이야 할멈에게 잘 부탁할슈밭겅잇나.....」

「그러는 원셔방님은 요사이는한번도안이 오시니 그런무정호랑반이 어딴게
셔요 궁금히 서라도 그러케는못호실터인디 언제던지 오시거든 이할미가
좀 푸념을호겅습니다」

할는말이 굿치지못호여 대문으로브러 신발소리가나며 셔병삼이 드려온다 로
파는급히일어셔서 일감을치우며

「아이서방님 오리간만에 오십니다그려 지금셔방님원망을 이 할미가호고
잇섯습니다 어저면 그러케한번도 안이드려다보셔요」

데이십구회

리경즈는 셔병삼을마져 방석우에안치고

「엇제 늦게오섯셔요 어딴단여오섯소」

「안이 일부러여괴셔지 온길이야」

호며 안져붓치질을호며 스면을도라보더니

「니집이라도 하도오리 못왔더니 모다섯투루군」

호며 반지고리에 바느질하단것을 보더니

「응이것어린놈나으면 다쓸소용이로구면 언으셔린아희를 다낫타니 원

잡갑스립지」

호는 최후의말호마디는 비양스립게말을호다 리경즈는말업시 다만얼골을붉기
고 고기만숙일뿐이라 로파는져셔리와 셔냥을갓다 셔병삼의압헤노으며

「두 님외분이 그러케안져계신것을뵈오닛간 그속에셔나오는아기야 오죽
이나어엽부겅습나스셔 그런경스가어딴잇셔요」

셔병삼은 비웃는모양으로

「할멈은 그다지경스스려운가 응또경스라호야도 관계치안치 안이그릇소
응여보아씨」

호며 리경즈를도라본다 리경즈는 반쯤우스면서

「아이몰나요」

「아이그우에 더 무슨경스가잇습닛가 절머셔는 즈손만이두는것이 능스람
니다 셔방님도 지금은 그리조흔줄을모르셔도 옥동갓흔아기를 나아보십
시오그러날마다 지롱보시노라고 야단을호실겅」

셔병삼은 링소호며

「흥 그러호샤 모르겅네」

호며 원연스괴만 입박그로니여불고잇다

리경즈는 눈치업시 잔소리호는것이 민망호여

「아이 할멈은 잔소리도 적은데 그만두고 저리가잇게」
로파는 무류할야 건넌방으로건너가는게슬 리경즈는 쫓아가서

「여보게할멈 서방님시장을실터이니 가다가나 가서 안주거리나 좀사고 술
이나 좀사고 히가지고 드러오게 늙은이를심부림식여서 불안하지만은원
여기는 식골구석갓장서 흥성인들마음터로 얼핏々々할수가잇셔야지 한참
되더리도 큰반찬가다가서 잡술만한것을 사가지고오게 응」

「네 단겨오지요 멀면얼마나 멀겟습닛가 그러면 곳단여오겟습니다」

하고 로파는 문간을나서니 문압해엇떠흔 아릅다운녀즈가 서셔잇다가 로파가
나오노양을보고 짹짹놀나여 다른길로향할야가라하느니라 로파는 그녀즈를
심중에 귀의치도아니하고 동쪽을향할야간후 그절은녀즈는 로파의멀니감을보
고 다시돌쳐서々 그안에서하느리약이를 귀를기우리고잇스나 보지못하느셔병
삼과 리경즈는 전연히아지못하니 이부인인즉 서병삼의부인이러라

데 삼심회

리경즈는 로파를밧그로 녀여보되고 다시건너와 안즈며

「앗다 그할미장이는 엇지잔소리도하느지몰나요」

「그리도 그할멈이 사름에게는 티단히 친절흔모양이야」

「네 사름은 정답기는하지요」

서병삼은 리경즈의비를 이욕하녀여보더니

「인제는 비가완연히 커졌구려 으히가비속에서 티단히놀지아마」

리경즈는 붓그러하며 마지못할야하느말로

「엇던날은 밤식도룩 잠흔잠자지못하느날도잇셔요」

「그런데 산삭은언제던가 아마시달이지 녀요전에도말헐거니와 히산과부
인병원에가서하도록히요 산모산아할것업시 데일구완을잘히주시가 모즈
가다편흔노릇을 안이흔단말이요 공연히되지못흔히산구완을즐안다는할
미장이갓흔걸을 다려다가하면 잘못하다가 큰일만장만하기쉽습니다 녀편
네들의소위 달구실이라하느것이 일상제한에되지안이하고 글로인연히서
여러가지일을작만하느것도 다히산구원잘못하느데서 생기는법이닛간 병
원에만가서하면 그런념녀는 조곰도업지」

「그럴수가요.....」

「그럴수가요가 무엇이요 그리고또나느으히는」

리경즈는 그소리에 무슴말을하려고하느고하여 녀녀스러워 서병삼의얼골을치
어다보며

「네」

「으히는 집에서기르느이보다 친정으로보녀서 길으는것이조치안겟소」

남녀간에 이나오는 이유로 인연하여 남편의 무정하게 하는 설음도 이저브리고 조곰이라도 위로가 될가하여 전부터 은근히 심중에 밋어둔터이어서 이제 남편의 이말을 드르미 더욱이 비참한 회포를 억제키어려워

「그것은 왜그리히요 내가 길을것갓흐면 적막한심스도 이저브리고 서방님이 오시드리도 압해서 고물〈흐는양도 보실것을……」

서병삼은 락담흔 어범으로
「그것은 다른사담이 아니라 녀편네라하는것은 만심팔계가 되지못하면 히를 젓먹여길을만하게 례격이발육되지못하는것인디 더구나 심철제미만 흔녀편네가 젓먹여서 조식길은다는것이 말이될말인가 실히 례익 (体液) 을일어브리면 그숫혜는 무슨병이나난나흐면 위황병(萎黃病)이라든지 그러치안으면 폐결핵(肺結核)이라느 무서운병을 이르킬터이니 나는단지 그티의몸을 위히서하는말이요」

서병삼의심중은 만일이으히가나오면 글로인하야 리경조와리연을 쓴키어려울가하야 아모조록 낫는바으히는 멀니하코자함이라
리경조는 겁을늬이며

「혹시 그러흔일이 잇슬난지도 모로지만은 내몸은 아모러케되던지 관계치안으니 내조식을내가기르지요……」

「내몸은 아모러든지 관계치안라는거시 그게말이라고하나 무엇이란말인가 아히모의몸이약하면 그영향이 조식에까지 미치는법인디……데일알기쉬운일이잇지 젓을늬노 어디봅시다 아히를너々히기르겟나 어셔늬노아요늬가보면알타이니 나도의원인디 붓그러울것이잇나 자-젓이이모양으로입디지 붓자를아니히스니 젓이나을수가잇단말이요」

리경조는 치마허리를 치키면서
「젓이엿거든 유모라도 하나디지요」
「앗다 돈만은 혼전흔전흔소리도하네」
「그러면 엿지하나……」

두사람이 서로 양구도록말엿시안젓더니 리경조는 말하기를 심히쥬져하다가
「이번방학에 서방님이딴에 느러가시거든 그썩는 내일을식부모썩라도 말숨하여쥬시오 식부모모르느며느리가 어디잇소」

「아이고 천만에큰일나라고 그런소리를하네 엿더흔완고서라고 리년만되면 그썩부우리부모가아셔도 판계치안을타이니 녀녀마려요」

「그썩부모썩서아시면 오쥬쥬중을하시겟소」
「글세 상관엿다니스간 그리네그러」

「그런데 일전에 죽동서맛나든 그절문네는 그이가 서방님의 의누의라고

하섯지요. 그이는 암전은합디다.
서병삼은 썰썰우스면서

「응. 암전하더니 그사짓게 무엇이 암전히 이련우리아씨를쫓초오라면 아주 멀었네. 발뒤꿈치를 엇지쫓칠슈잇나」

별안간에 엇더흔절문녀즈흔스람이 치마는버서 왼편쫓팔에걸고 다름질을하다 심히하여 신발신은쳐로 마루우에 옷등을나서더니

「응. 그러치요. 그사지게 무엇이암전히 우리아씨를쫓초오라면 발뒤꿈치나 싸를슈잇소」

응. 달녀드느바름에 두사람은 섬쫓놀녀여 얼골이푸르락 붉으락하며 서스잇는사람을 쳐다보니 이논의외에 지금말하고 잇는서병삼의 의누의라고하던 녀즈이라

데 삼십 일 회

서병삼도 놀녀엿거니와 리경즈에놀녀거이 더욱심하야 전후감각을이져바렸스며 리경즈는 놀녀인동시에 서병삼과 그절문사람두사이에 관계를팔구분이 나 짐작하엿더라. 전일에도 그두사람의관계가 다만의남미가안임을 의심하여 만일다른기쁜사실이 숨어잇는날에는 녀의운명이 엇지될는지 궁구지중에 지녀와드니 오날스그의심과 두려워하던일이 과연스실로나타남을 썰다랏는지

누 옥 생

라 지금들이입흔녀즈의 얼골을보건티 전신의살느피가 얼골로만다오르듯시 진홍물감을제언진것갓흐며 리경즈의얼골은 흑빛스치 팔앗케질녀서 다만입살 만신경덕(神經的)으로 썰닐뿐이라

절문녀즈는 몸단속을하고 당장에달녀들어 싸흠이라도홀듯시 서병삼과 리경즈의두사람을 좌우로건너다본다 리경즈는 아모리분하고 원흉흔일을 당하디리도 망녕된거등을하여 녀즈의형실을 일치아니하느사람이기로 묵묵히안져 그절문녀즈의얼골만 쳐다보고잇고 서병삼은 이좌척에서 엇더흔계책을베푸러 무마홀도리는업고 망지소조하야 양구도록 망연히안져잇다 한출동안은 말업는삼기우상(三個偶像)이 솟발스치 서로향하야 잇슬뿐이라 일에임하야 침착흔리도를취하느디 득리흔서병삼은 조곰도쥬져하느괴식이업시 레스로 절문부인을보고 말흔다

「여보. 이게무슨형실이요. 남의집에를 기침흔마티도업시 쫓드러와서 야단을치나 무슨허거야. 더구나계집사람이 소문나면 남부그러울싱각도못하나 공연히 그리지말고 어서집으로 도라가오 무슨말이잇스면 잇다가조용히 합세다. 어서가오」

응. 서병삼은 눈짓코짓을하여 절문부인다려 어서가라눈치를보이나 반은밋천것스치 보이는부인은 조곰도알아듯지못하고

「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것은 누가 잘못되었나 보오만은 무슨도져
 절할러 들어온것은안이요 누가 잘못도져 절을 할러왔드리도 남의 남편도져 절
 하는사름보다야 낫지안이겠소 남이붓그럽다니 다른년에게서방세앗기
 는것이 나는더남붓그럽겟소 서방님은 요전에 나다려무엇이라고하셨소
 이량반은 우리천구의부인이라하셨지요.....아모리 계집사람이라고 그러
 케업신녀이고 속이지마셔요 그씨도나하고 인스붓칠씨의 누의니 무엇이
 나하고 인스하라할제도 나는발셔반너모 짐작은할였소 그러치만니가 참
 고있셨더니..... 지금도니가 문스간에서듯고잇노라니서 리년에는 펼쳐노
 코니외로산다지요 응- 넘오그리마셔요.....저이는 일홈이리경조라저
 엇지히셔 남의남편을 빼셔가라고 아양을셀고잇셔 누가아모리죽게되얏기
 로 응, 참」

하는디 눈알은 풀비스차 광치가난다

리경조는 얼골이파라케 질녀안졌다가 침착할연스로

「지금 가마나듯노라니스간 당신말이 이상스럽구려 남의 남편을 빼스라고
 아양을편다니 나는놈의 남편을 빼스라고하는일도 업거니와 이서방님은 너
 남편이오 그리고발셔 성례할지도 오리되얏소 당신은 누구인지는 모로겟
 소만은 당신이정말로 놈의 남편을 빼스려하는사름갓소」

절문부인은 귀가막히여 한참말을못하다가

「을치 그말갓소 그러면은제 어디셔 누히락을밧아가지고 성례를할였단말
 이오 그말디답좀 저셔히호오」

서병삼은 두녀조의싸호는스이로 가르고드러안으며

「이것이 무슨것들이야 점자는너편네들이 남붓그럽게 싸흠을하다니 말이
 되나 일후에저셔할일은 다알러이니 오날은 요란하니 그만두고 다각각호
 여집시다」

절문부인은 서병삼의말은 드르데도안이호고

「서방님은 감안이게시오 여보글세 혼인은 어디셔히느냐말이야요 말못할
 것무엇잇소 입두었다가 무엇에쓰라오」

리경조는 부득이호야

「네 그다지알너고 무를것갓호면 다말하리다 혼인은 예수교당에서 목스
 압혀서하는님씩밍세호고 부부의인연을미졌스니 그외에서 더엇더케착실
 혼혼인이잇소」

절문부인은 이말을들더니 눈에는피스발이일어셔며 서병삼을향호야

「여보서방님 그말이정말이오 회당에서정말저사름호고 혼인을호셨소 조
 곱도숨기지말고 말슴히주시오 나도먹은미음이잇스니」

서병삼은 좌우로 말하기를 처하야

「글세 그일은 다나중에 알씨가 있스니 오날은 그만두고 어서가오」
절문부인은 홀연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체음하며

「그…………그러하면 유처취처도하나…………나는 인제…………」

이씨에한참 늑산근처로 화광이 일어나며 경찰서에서 불났다는종을 자조치는 소리 바람촉초귀에드러온다 서병삼은 섬썩놀니이느체하며 번연히몸을일어 그곳을바라보나

「아 불났군 저것이죽동근처가본디 우리주인집이나 타지안나 암문하야
도 위티흔걸 어서가보아야겠군」

할며 옷슬찌여입고 황々급々 밧그로나아가서 절문부인을향하야 눈짓한다 그 부인도 뒤쫓차 황망히싸라나간후 늑아잇는리경즈는 참고참앗던가슴이 일시에 파렬하야 안젓든처로 쓰러져서 늦겨가며 호읍한다

데 삼십이회

리경즈는 본래머음이 강렬가흔사람이라 오날々까지 무흔々고통(苦痛)을억제 하고 괴식을던연하야지니더니 서병삼과절문부인이 서로군호맞은것과갓치션 후하야 나아간후에 리경즈는 조고마흔가삼에 넘치느슬음에 소리쳐호읍함을 서닷지못함도 근리흔일이라하리로다

쌍 옥 누

전일부터 그두사람의사이를 의심치아님은아니로되 설마그사람의 임의성취흔 안히인줄은뜻하지아니하엿더라 그럼으로 너몸의장리가 비록가을부처와갓치 한참동안은 쓰져아니함을건이되더리도 다시더운날오기를 기다림과갓하야 남편이지금 사제로인하야 탐탁지못하나 일후귀회가 도라오면 량친의명을 거역 은할지라도 나와흔가지로 밍세흔언약을 굳게적혀가라하느싱각이면 남편의확 실흔머음이나 밋고바라쳐 위로올거시어늘 서병삼의근일에 일으려서하느 무정흔거쥬와 오날당흔일을보미 더욱내게향흔마음이 서어흔이분명하니 너의 몸은받쳐 등기흔데일으릿는지라 무어슬밋고 나의권리를보호하리오 가량남편 이느를불상하역이느머음이잇서 도라보려할지라도 그절문네즈가 필연져희하야 두사람의사이를찌어려할터이니 아모리싱각하야도 안히라하느이몸은 받쳐 바람압헤 씻갓올지라 실로느의리상(理想)의 락원(樂園)은 이와갓치 숨결스 이에 슬혀지고 드티여비참흔말로(末路)를보느디 일으도다 그러느이것슨 모 다나의지혜가부족함과 내의처신잘못흔연고로 스스로부른죄업(罪業)이니 누 를원망하야 한하리오만은 씻갓흔성례흔 안히를두고 잇스면서 이몸을질거운 처녀의싱활로부터 빼어서다가 박설갓흔 너즈의조행(操行)을 희롱하야 드티 여이몸으로하야곰 여스흔운명(運命)에 싸지게흔 서병삼을 원망하야 또느두 사람사이에서 주선하든 오정당을원망하야 셋지로는 그절문부인을원망하야

가중하며 다시나의 몸을 원망하며 더욱이 불구에 출싱을 비속에 있는 어린아희의 장리를싱각함에 그불상하고 존잉함이 비길티업스며 또는부친이 이몸을셔울 서지다리고오셔셔 부탁하고 내려가실씨에 남티문밧덩거장에서 뇌손을잡고 공부잘하라 경계하시던말삼을 지금서로히싱각함이 슨흠과 불효씨치는일이 가슴이 무여지는듯하다 부모가 허락지도안이흔 사나희에게 바림을밧은 이몸 이 더구나 한몸도안이라 무슴면목으로 부모씨도라갈수가잇스며 또는부친썩이 아니라 은인이라하여도 가흠만흔 김승지의부々며 기라고향여러사름을 무슴 얼골로 상티하야전일학교에서갓치 슈학하는 여러동창학생들과 아는사름에게 는 슈치를엇지당하리오 이싱각다싱각을함의 흥중이산란하여 진정기어렵다 지금이라도 이몸을 도라보지안이한다말을 드른후에는 이몸이엇지되리오 싱각흥인 머리털이 위로올나가며 정신이앗득하여 몸이지함속으로 실녀드 러가는것갓다

리경조는 흥중에만감(萬感)이 교집(交集)하여 창자가 썩어지는것갓흐니 가 련하다 리경조여 지금서지 평은안락(平穩安樂)하게지내여오던 처녀로하여곰 이세상풍파에 단련흔녀조로 일즉이아지못하는고통을밧으나 누구한사름 위로 하는이도업는 저녀씨방안에서 홀로정신업시 올썩이로다 오호라 세상에죄라 하는거시 여러가지가잇스니 그장중하고 결백무결(潔白無缺)흔쳐녀를 희롱하

는 경박죄조(輕薄才子)又名 죄가중흔자는 업슬지니 몇빅기의빅옥(白玉)과몇 천기의 금강석(金剛石)이 잇드리도 결백흔쳐녀의 믿음한아를 능히당치못홀지 라 보석이라하는거슬 아모리귀하다하여도 엇디흔곳에던지 구홀도리가잇거나 와 한번더럽힘을밧은 믿음에흔져은 다시곳쳐엇을수 업는것이라 이세상에서 일으기를 범죄중에 극히중흔거슨 살인범(殺人犯)이라하나 그피히자(被害者) 에게 주는고통은 다만삼시간이어늘 사름이 그말을드를씨에도 오히려 전를 (戰慄)하거든 흠을며 죽이는것보다 더욱심흔 믿음에 언쳐슈어서길게육테이상 령흔에서지 상케하는거시 엇지참혹무도흔소위라 일커르지안이항리오 앓가흥 성흔러나아갓던 로파는 이제비로소 드러오는데 한손에는 바구니를들고 드러 오더니 마루우에올녀노코

「아이 앓씨 녀오느젼습니다 여간멀어야지요」
하고 부억으로드러가려하다가 리경조가 티답업슴을고이히녀이여 다시마루위 로올나와 방안을드러다보니 리경조는 홀로업티여서 올고잇는지라 로파는달 녀드러 리경조의억기를붓들고 혼들면서

「아씨 이게웬일이셔요 네々 그만긋치시오」
리경조는 대답업고 더욱소리질녀 누길썩이라
데 삼삼삼회

로파는 엇지 혼연유를 아지 못하야

「글세 아씨 왜 이리 하심닛가 왜 우시오 서방님하고 싸움하섯슴닛가」
리경주는 치마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대답이 없다

「글세 왜 그리 심닛가 서방님도 아니 계시고…… 서방님은 밭서 가섯슴닛가」
리경주는 우든 얼굴을 간신히 들며

「여보게 할멈 심부름만 작고 식여셔 넘오 불안하이 만은 동관오선성님뒤에
가 틈이 계시거든 잠간만 오시라고 좀가서 되시고 오게」

이러한데 의론하마디라도 할사름은 오정당의에 업는지라 오정당을 청하야
조그의신상을 의론코지함이러라

로파는 고기를 섰덕이며

「네 그리지요 그럼 곳 단여 오겟습니다」

이러서려할즈음에 디문으로부터 사름의 자취가 나며 드러오는지라 로파는 마당
을 향하야 넘어다보더니

「아이고 선성이 맞춘 오심니다 그러 지금 엇쥬러 가랏하얏더니 잘되얏습니
다」

함며 심히 다행이여 기는 모양보고 오정당은 괴이히역여

「나를 부르러 가라고 하셔 무슨 급할일이잇섯나」

쌍

함며 목이 메여 말을 다일우지 못하고 다시 업더진다 오정당은 조용히 리경주의
옆으로 가더니 등에 손을 걸치고

「여보게 웬일인가」

리경주는 간신히 얼굴을 드러

「저는 설어 못…… 살겠셔요」

함며 다시 말을 일우지 못하고 또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며 운다
오정당은 놀는 온 가슴을 진정하면서

「지금 서명삼씨가 왔섯지요」

함며 머름이 리경주는 다만 고기만 섰덕인다 오정당은 다시 못는다

「그랑반 혼저 왔든가」

리경주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후々 늦기는지라 오정당은 임의 반분이나 짐작
하고